2008 새해설계 ①

포천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 순 임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여성회관에 마련해야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포천시 여성단체의 활동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다. 그러나 활동에 비해 대우가 좋은 편이 아니다. 일례로 현재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장소가 협소해 11개 단체장이 회의를 한 자리에 모여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주지 않고 있다. 이처럼 찬 대우를 받으면서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나서고 있는 여성단체들의 새해설계를 들어보기로 한다. 〈편집자주〉

"지난해에는 11개 단체장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해외결혼이민자 아기돌보미, 아시아비엔날레 안내 봉사, 장애인시설의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김치 담그기는 물론 포천시 주요행사에 적극적인 봉사활동에 나섰다."

포천시여성단체협의회 김순임(56·사진) 회장이 밝힌 지난해 성과다. 김 회장은 올해는 장애인 봉사에 중점을 두어 활동하기로 했으며 장애인 시설을 위한 김장김치 담그기는 김장배추 심기부터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구정을 맞이하여 장애인시설 33곳에 떡 1말씩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지난 한해 11개 단체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서로 한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지역의 큰 행사를 지원하고 각 단체별 특색 있는 봉사활동을 개발해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운동은 목욕봉사, 고향주부모임은 독거노인 위한 반찬봉사, 청소년 봉사, 자유총연맹은 도배봉사와 의경생일축하, 적십자봉사회는 독거노인 반찬, 새터민 자매결연, 어머니방범대는 야간순찰, 동장군축제봉사, 미용사회는 미용봉사, 자연보호협의회는 대청소 등 단체별 특색 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사무실이 없어 힘들었던 여성단체협의회에게 지난해 주어진 사무실은 3평도 안되는 좁은 공간인데다가 사무실에 진입하는 길도 어려워 몸집이 큰 회원은 진입에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여성회관에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11개 단체장들과의 회의도 할 수 없는 비좁은 사무실에서는 업무추진이 어렵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마련에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포천시여성단체협의회 소속 단체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유총연맹 회장 이계순 ▶적십자봉사회장 윤옥순 ▶어머니자율방범대장 염정자 ▶의용소방대장 손윤선 ▶미용사협회장 송석구 ▶고향주부모임회장 최명자 ▶주부교실 회장 서희숙 ▶새마을지회장 최계옥 ▶재향군인회장 김나은 ▶세계평화통일 회장 박영희 ▶아이코리아 회장 백복현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주부이야기

향기

강옥자 주부 명예기자단이사

현관을 들어서자 향기가 나를 휘감아 돌아 훈훈하게 했다. 우리 집은 요즘 사람향기로 가득하다. 작년에는 예쁜 아기가 하나였는데 요즘 둘로 늘어나서 사람 사는 맛, 아기들의 향기로 밤이 가는 줄도 모른다. 아기한테 나는 향기는 그 어떤 향수보다 더 좋다. 언제부터였던가?

아기들이 너무나 예쁘게 보이기 시작했고 만져보고 싶고 안아주고 싶어지더니 나이가 들어가는 증세라고 그 누가 말했다.

손주한테 잘해주어서 무슨 덕을 보겠냐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나는 벌써 손주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날마다 눈만뜨면 나에게 선물을 한다 요즘에 유행하는 텔미댄스도 추고 어린이 프로도 같이 보게 되어 동요도 부르며 더블어 나 또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마음도 몸도 젊어진다. 나는 오늘도 사람사는 향기에 묻혀서 하루를 열었다.

21C 새로운 봉사

용경자 주부 명예기자단감사

철원의 기온이 영하 18도인데 햇살은 어딘가 숨어서 온종일 구경도 못해보고 대신에 칼칼한 바람이 놀러 와서 사람들의 뺨과 귀를 빨갛게 얼리는 날이다.

나는 배달 일을 하는지라 차 안에서 히터를 틀어 추위를 피하지만 온기 없는 큰 공장이나 바깥에서 일하는 분들은 온몸으로 추위를 받아내고 있으니 그들에게 겨울은 형벌이란 생각이 든다. 이런 날에는 건강한 몸으로 따뜻한 마음을 서로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포천에서 송우리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사시사철 똑같은 복장을 하고서 포천에서 송우리로 난 4차선 도로변을 걸어 다니던 그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작년 여름에 입고 다니던 구멍이 숭숭 뚫린 털 스웨터에 얇은 바지를 입고서 잔득 어깨를 오므린 채 여름의 그 모습 그대로 걷고 있었다. "아니 저 아저씨가 오늘처럼 추운 날에도 저렇게 걸어 다니고 있나?"하면서 바라보노라니 유난히 추운 날씨가 신경이 쓰인다.

사람은 신체가 건강해야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가 수월하지만 신체의 결함이 있다하여도 정상인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언론의 목표물이 된다. 그 이유는 정상인보다 뛰어난 불굴의 의지력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그보다도 나은 조건에서 나는 왜 못하나? 하는 자기반성을 유도하려는 언론의 뜻이리라. 결론적으로 사람은 정신이 건강하면 신체적인 부족함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체는 멀쩡한데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우해야 할까? 신체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모든 사람의 도움이나 보살핌을 받는 사회적 풍토가 형성되어 있지만 정신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그 방법을 묻는 것조차 아이러니 하다. 어른들은 사지가 멀쩡한데 왜 저러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면서 질책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하지만 기름투성이의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서 맹목적으로 걸어 다니는 저 남자가 가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보다도 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리란 생각이 들었다.

내 작은 소망이 하나 있다면 내 주변에 정신적인 빈곤으로 고생하는 이웃에게 정신적인 풍요를 나누어주는 미래의 봉사자가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정신적인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과 정신적 풍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21C 새로운 봉사자가 아닐까?

추운 이 겨울 누군가 맹목적으로 길을 걷기만 하는 저 남자에게 따뜻한 잠바와 함께 손을 내밀어 쉼터로 인도하려는 정성이 있다면 진정 테레사 수녀님의 후계자이리라.

내년 봄에도 이 도로를 계속 걷고 있으려나? 걱정과 소망이 교차하는 오늘이다.

'시민과 함께 實踐하는 예총'

포천예총 新年賀禮會 · 포천예술상 시상식

포천예총(예총회장 이희용)은 1월25일 저녁5시30분 유림회관 4층 퀸즈 웨딩홀부페에서 2008년 포천예총 신년 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하례회는 신년을 맞이하여 한자리에서 덕담과 격려를 주고받는 뜻 깊은 자리로 포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예술단체인 국악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무용협회 연극협회 등 예총 소속 500여 회원들과 고문, 자문위원, 음악, 사진, 연예 등 회원단체를 준비하는 예술인, 유관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포천예총은 이 행사의 취지를 2008년도를 우리고장 예술문화 발전을 위한 모든 마음들을 모으고 지역 예술인들이 서로 단합하고 화합하는 원년으로 만들고자 본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하례회에는 무용협회, 문인협회, 국악협회 등 예총 소속회원들의 축하공연과 올해 새로 선정된 제1회 포천예술상 시상식, 그리고 경기예술 공로상 전수식도 함께 개최했다.

한편 포천예총은 1998년 12월 창립되어 5개 협회 500여명의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07년 4월 제3대 임기를 시작으로 예총 회원의 단합을 통한 시민과 함께 움직이고 실천하는 예총으로 거듭나고 있다.

한편, 이날 제1회 포천예술상 수상자는 이영재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5호 포천메나리 보유 자와 오세철 경기도무형문화재 제38호 풀피리 보유자가 선정돼 수상했다.

이날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포천예술상 1호 이영재 ▶포천예술상 2호 오세철 ▶공로패 정재운 전 사무국장 ▶공로패 정미란 전 사무차장 ▶공로패 김선진 전 사무차장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예총은 1월25일 저녁5시30분 유림회관 4층 퀸즈 웨딩홀부페에서 2008년 포천예총 신년 하례회를 개최했다.

"알뜰한 살림으로 조합발전 기여하겠다"

서울중부경편조합 김재화 이사장 취임식 가져

서울중부경편조합은 1월24일 조합회의실에서 신임 김재화 이사장(왼쪽)이 전임 이동군 이사장(오른쪽)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있다.

서울중부경편조합은 1월24일 조합회의실에서 이동군 이사장을 비롯 8명의 이사진에 대한 이임식과 신임 김재화 이사장과 9명의 이사진, 감사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서 김재화 이사장은 "부족하나마 임기동안 알뜰한 살림을 하여 조합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조합원 여러분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2008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이며 신임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김재화 금화편직 대표이사 ▶이사 손병률 태영섬유 대표이사(대의원) ▶이사 윤원수 경원실업 대표이사 ▶이사 박함주 일화직물 대표이사 ▶이사 이상인 주원산업 대표이사 ▶이사 최석호 럭키섬유 대표이사 ▶이사 서창호 태양섬유 대표이사 ▶이사 이윤호 태영섬유 대표이사 ▶이사 박승규 태광섬유 대표이사 ▶이사 최성덕 유경섬유 대표이사 ▶감사 박종선 신진편직 대표이사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국내최초 젖소농장 HACCP 지정식

포천백운유가공영농조합법인 전 조합원

국내최초로 젖소농장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식이 1월23일 11시 서울우유 동북부 지원센터 강당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지정식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겠다는 일념으로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한 결과 국내에서는 최초로 7개의 젖소농가가 인증을 받게 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지정식에서 김희동 포천백운유가공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지정과정을 설명을 통해 "2008년1월7일 젖소농장 HACCP 지정을 국내 최초로 포천 유밀원목장과 노곡목장을 시작으로 1월15일 정동, 에벤에셀, 순해, 소낙비목장이 지정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연곡목장이 HACCP 지정을 받은 후 12년만의 일"이라며 "전 단계 HACCP 지정된 농장 및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여야만 소비자들로 하여금 국내 우유 및 유제품의 안전성과 고품질을 인정받아 수입 유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국내 유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 모든 낙농가에서 HACCP를 지정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지정을 받은 목장들은 우연히 지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난 2년동안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김희동 대표는 국내의 대부분의 목장에서 HACCP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주와 부인의 HACCP 운용의지가 있어야 하고 위생 및 HACCP 교육을 철저히 이수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안심·안전한 우유를 공급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국내최초로 젖소농장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식이 1월23일 11시 서울우유 동북부지원센터 강당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 부터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위해 물질이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들 위해요소 중에서 최종 제품에 결정적으로 위해를 줄 수 있는 공정, 지점에서 해당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 시스템.

웰빙 부사의(不思意) 세상(世上)과 세월(歲月) 40

"세월이 시간(時間)이라면 세상은 공간(空間)이다"

"내가 있음으로서 상대(相對)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있음으로서 나와 상대와의 관계(關係)가 이루어지는 것"

세월(歲月)을 낚는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세상(世上) 인심 참 고약하다는 말도 들어보았을 것이다. 세월과 세상이라는 말은 사람의 냄새가 풍기는 말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는 말이다. 물리적(物理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인간적인 정감(情感)을 주는 말이다. 세월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running time)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계절(季節)을 말하는 것이고 변화(變化)를 말하는 것이고 인생(人生)을 말하는 것이다. 시간 속에 오고 가는 삼라만상(森羅萬象)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부경(天符經)에서 일묘연만왕만래(一妙衍萬往萬來) 용변부동본(用變不動本)이라 한 것이다. 일년 사계절 오가는 속에 만물이 변화무쌍하나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세월 속에 세상일이 담겨 있다. 세월이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라면 세월이라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거기에 우리의 '삶'이 담겨있기에 세월이라 부르는 것이다. 우리의 삶과 무관하다면 구지 세월이라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삶이 담겨 있기에 그리 부르는 것이고 인생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이 담겨 있기에 그리 부르는 것이다.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이 함께 명멸(明滅)하기에 그리 부르는 것이다. 생노병사(生老病死)가 함께 하기에 그리 부르는 것이다.

세월이 시간(時間)이라면 세상은 공간(空間)이다. 그런데 그 시간과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시간과 공간이 아니다. 우리의 '삶'이 담겨있는 공간이고 우리의 '생활(生活)'이 담겨있는 공간이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생노병사'를 의식한다는 말이고 '희노애락'을 의식한다는 말이다. 생노병사를 의식하면서 '세월'을 관조(觀照)하고 희노애락을 의식하면서 '세상'을 관조한다는 말이다.

세월이 시간(時間)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세상은 공간(空間)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세상이란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물리적 (物理的)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담겨있는 심리적(心理的) 공간이다. 세상사(世上事)가 담겨있는 심리적 공간이다. 그래서 지구(地球)라 부르지 않고 세상이라 부르는 것이다. 세월 역시 마찬가지이다. 세월은 물리적 시간이 아니다. 심리적 시간이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인생이 여삼추(如三秋)란 그래서 생겨난 말이다.

여삼추란 가을을 세 번 맞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시간의 흐름이 그처럼 빨리 흘러간다는 말이다. 그렇게 느껴진다는 말이다. 삶을 뒤돌아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소년이노학난성(少年易老學難成)하니 일촌광음불가경(一寸光陰不可輕)이라.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을 이루기는 어려우니 촌음이라도 가벼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계전오엽춘초몽(階前梧葉春初夢)인데 미각지당이추성(未覺池塘已秋聲)이라. 앞뜰에 오동나무는 아직 봄기운인데 깨어나지 못한 연못에는 벌써 가을소리가 들린다는 말이다. 시간의 소중함을 일러주는 말이다. 세월이 속절없음을 깨우쳐주는 말이다.

이 규 임 한국영상제작학회 회장

세월을 낚기만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비관(悲觀)만 해서도 안 된다. 시간은 상대적(相對的)인 것이다. 촌음이라도 아껴 쓰는 사람에게는 소중한 것이나 허송세월(虛送歲月)하는 사람에게는 속절없는 것이다. 곧은 낚시를 드리우는 강태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의 탓만을 하는 삐딱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 '내'가 있음으로서 상대(相對)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있음으로서 나와 상대와의 관계(關係)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나는 빼놓고 말하는가? 모두 내가 할 탓이다. 세월도 세상도 내가 할 탓이다. '때문에'하지 말고 '덕분에'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이다. 알아듣기 바란다.

'市民에게 더욱 다가가는 文化院'

포천문화원 2008 정기이사회 개최

포천문화원 (원장 이만구)은 지난 24일 이사 및 감사를 포함 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2007년도 감사보고, 2007년도 사업추진실적, 2007년도 예산결산(안), 2008년도 사업추진계획,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중 개정(안), 임원 선출규칙 중 개정(안), 회원 신규 입회 및 탈퇴 승인 등 안건을 심의하고 2008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의를 가졌다.

2008년도 주요사업으로 22회를 맞는 반월문화제를 범시민적인 문화행사로 개최하기로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매년 개최되는 한시백일장과 금년도 두 번째 실시하는 휘호대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결의했으며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은 제3회 가족 시낭송 경연대회를 확대 개최하여 더욱 많은 시민들이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특수 시책으로 좋은 책 읽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향토사 바르게 알기 경시대회를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관내 문화재 보호 관리를 위한 1사 1문화재 결연사업과 포천문화원 문화예술단(가칭)을 운영하여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이만구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8년도에는 우리문화원이 한 단계 더 발전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는 문화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해로 만들 것을 다짐하며 이에 대한 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문화원은 지난 24일 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